

빛바랜 CK포

〈최희섭-김상현〉

KIA 마운드 흔들... 두산에 개막 2연전 완패

‘미리보는 한국시리즈’ 호랑이의 완패였다.

KIA 타이거즈가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시즌 2차전에서 뒷심부족으로 9-10으로 역전패를 당하며 시즌 2패째를 기록했다.

KIA는 1회부터 CK포를 가동시키는 등 막강화력을 과시하며 전날 3-8로 개막전 6연패의 불명예를 안겨준 두산에 시원한 분풀이를 하는 듯 했다.

1회초 테이블 세터로 호흡을 맞춘 이종범·안치홍이 땅볼과 플라이로 물러난 뒤 3번 나지완이 2루타를 터트리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2사 2루 최희섭과 김상현이 나란히 홈런포를 가동하면서 3-0을 만들었다. 시즌 두 번째 연속타자 홈런이자 동시에 폭발한 4번째 CK포였다.

KIA는 이후 김원섭의 2루타를 포함 4개

의 안타를 곁들여 5-0까지 달아났다.

2회 1점씩을 주고받은 뒤 3회말 선발 데뷔전에 나선 KIA 전태현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경기의 흐름이 뒤바뀌었다.

첫 타자 오재원에게 우전안타를 내준 전태현이 2루타와 볼넷 두 개씩을 허용하는 등 두산 타자들에 못매를 맞으며 2와 3분의 1이닝동안 6실점하며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선발로 내세운 KIA 전태현과 두산 이현승이 초반에 무너진 뒤 양팀의 앞치락뒤치락 타격전쟁이 전개됐다.

4회 KIA가 김상현의 적시타와 채종범의 희생플라이로 2점을 더했다. 5회에는 나지완의 우전안타를 앞세워 9-6까지 달아났지만 곧바로 두산의 대반격이 이뤄졌다.

5회말 KIA는 조기 투입한 광정철에 이어 박경태·손영민을 마운드에 올렸지만 타자 일순한 두산의 공세에 밀리며 9-10으로 역

전을 허용했다.

9회초 KIA에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 대타 이용규가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난 뒤 이현근의 우전안타 나오면서 1사 1루. 하지만 이종범의 병살타가 나오면서 9-10으로 경기가 종료됐다.

오후 2시15분 시작된 경기는 양팀 톱타자가 6번 타석에 들어서는 타격전이 전개되면서 3시간 45분 동안 계속됐다.

27일 만이던 로페즈가 시즌 첫 연타석 홈런을 허용하는 등 6실점 하며 개막전 3-8 패를 기록했던 KIA는 28일에도 마운드가 흔들리며 6점차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2연패로 2010시즌을 시작했다.

KIA는 지난해에도 두산과의 개막전에서 2연패를 당하고 돌아온 뒤 시즌 4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백투백 하이파이브 28일 오후 서울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2010 프로야구 두산과 KIA 경기. 1회초 2사 2루 상황에서 KIA 최희섭(오른쪽)이 우측 담장을 넘는 2점짜리 홈런을 때린 뒤 홈을 밟고 동료 김상현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김상현은 뒤이어 타석에 나와 솔로포를 날렸다. /연합뉴스

최희섭 잠실 장외홈런?

최희섭의 홈런은 어디로 갔을까? 28일 개막 두 경기만에 ‘빅쇼터’ 최희섭의 홈런포가 가동됐다.

홈런군단에 도전하는 KIA 타이거즈의 시즌 1호이자 맞는 순간 홈런이었던 큼직한 타구에 잠실구장 기자실은 장외 홈런이나 아니냐를 놓고 술렁였다.

두산 선발 이현승의 슬라이더를 그대로 잡아당긴 타구는 포물선을 그리며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낙하지점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중계화면 상으로는 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듯 보였기 때문에 장외라는 데 의견이 모아질 때쯤 장외홈런이 아니라는 정식 기록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기자실이 술렁였다.

길었던 KIA의 1회초 공격이 끝나고 기자들이 홈런 장면을 다시 보기 위해 일제히 TV앞에 몰리는 진풍경까지 펼쳐졌다.

중계화면에는 영락없는 장외홈런이었지만 베레타 기록원들은 확고하게 장외가 아니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한참 동안이나 계속됐다.

역대 두번째 주인공 논란속 결론은 “착시현상” 해프닝

최희섭의 홈런을 두고 일었던 논란은 결국 한 취재진의 발에 의해 ‘장외홈런이 아니었다’로 판명됐다. 안양에서 경기장을 찾은 부부가 최희섭의 홈런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온 취재진의 증언으로 잠실을 달구었던 홈런 논란이 마무리 된 것이다.

김동주에 이어 잠실구장 두 번째 장외 홈런 주인공이 될 뻔했던 최희섭의 기록은 비거리 130m의 우중간 투런 홈런으로 남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고 오늘 황금사자기 품는다

오후 6시 30분 잠실서 장충고와 결승 대결

광주일고가 황금사자기 5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아마야구의 감자 광주일고가 지난 27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황금사자기 전국고교 야구대회 경북고와의 준결승에서 10-6 승을 거두며 대망의 결승전에 진출했다.

2-1의 1점차의 리드를 벌이던 5회 광주일고의 막강 타선이 폭발했다. 허일의 안타와

김요셉의 2루타, 임영섭의 볼넷을 묶어 만든 무사 만루의 찬스에서 유창식의 적시타와 이현동의 2루타가 연달아 터지면서 점수는 7-1이 됐다.

4-7로 쫓기던 8회 허일의 투런포와 이현동의 적시타로 3점을 달아낸 광주일고는 9회 볼넷 두 개를 내주며 무사 1·2루의 위기를 맞았지만 2실점으로 마지막 이닝을 마무리하며 10-6 승리를 확정했다.

지난 2008년 덕수고를 제압하고 대회 4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광주일고는 29일 오후 6시30분 잠실구장에서 장충고와 마지막 대결을 펼치게 된다. 장충고는 2006·2007년 대회 2연패를 달성한 난적으로 탄탄한 마운드를 앞세워 광주일고와의 광광한 투수전을 예고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랑이, 후배 응원 동상이몽

KIA 타이거즈의 개막 2연전이 벌어진 잠실구장에 광주일고의 황금사자기 결승이 화제가 됐다.

KIA에는 ‘바람의 아들’ 이종범을 필두로 해 김상훈·최희섭·이현근·광정철·서재용 등 광주일고 출신들이 중심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일고가 전국대회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던만큼 시즌 첫 대회 결승전 진출은 선배들에게도 반가운 소식.

광주일고 후배들은 KIA 선배들이 2010 시즌 스타트를 잠실구장에서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후배들의 잠실 출격소식을 접한 광주

일고 출신의 KIA 선수들은 상대팀 장충고 전력과 경기 시간 등을 물어보며 결승전에 관심을 보였다.

1997년 황금사자기 타격왕 출신의 이현근은 “그 해 대회에서 타격 3관왕을 했지만 봉준근이 버티고 있던 신일고와의 결승에서 저 아쉬웠었다”며 “이번 대회 우승은 광주일고가 차지할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희섭은 두산과의 2차전 경기에 앞서 “오늘 경기에서 KIA가 승리하면 잠실에 남아 후배들에게 응원을 보내겠다”고 모교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결승전이 열리는 29일은 프로야구 경기가 없는 휴식

일이다. 광주일고의 우승을 바라는 이들의 목소리가 가득했던 KIA 덕아웃에서 나흘로 장충고의 우승을 외친 이도 있었다.

KIA의 특급 마무리 유동훈은 장충고를 졸업한 ‘장충맨’. 유동훈은 지난해 장충고가 무등기 결승에서 개성고와 맞붙자 관중석을 지키며 후배들을 응원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유동훈은 “장충고 실력이 뛰어나다. 반드시 후배들이 우승할 것이다”고 장충고 우승을 빌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상훈 등 일고 출신 “우승은 광주일고” 유동훈 “무슨 소리... 장충고 실력이 월등”

2010 프로야구 각 부문 1호 주인공

홈런- 넥센 김민우, 안타- LG 이대형

삼진- 넥센 정수성, 병살- SK 박재상

넥센 히어로즈 내야수 김민우(31)가 2010 프로야구 1호 홈런의 주인공이 됐다.

김민우는 지난 27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2010 CJ마구마구 프로야구 개막전 롯데 자이언츠와 경기에서 1회초 2번 타자로 나와 롯데 외국인 선발 투수 라이언 사도스키의 9구 가운데 높은 싱커(시속 144km)를 통타, 왼쪽 펜스를 훌쩍 넘기는 120m짜리 솔로 아치를 그렸다.

개막 축포가 터진 순간 전광판에 찍힌 시간은 14시04분. 2002년 2차 4라운드 27순위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한 김민우는 다섯 시즌 동안 백업 내야수로 뛰었고 통산 홈런이 지난해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고 때린 3개에 불과할 정도로 뜸박이 타자였다. 김민우는 개막전 첫 홈런과 함께 2010 시즌 1호 득점과 타점도 덩달아 기록했다. 김민우는 또 5회초 중전 안타를 때리고 홈

투한 뒤 다음 타자 더그 클락 타석 때 2루를 홈쳐 올 시즌 첫 도루도 기록했다.

김민우는 개막전 1호 홈런, 득점, 타점, 도루를 독식하며 생애 최고의 날을 맞았다.

첫 안타는 대구구장에서 LG 트윈스 외야수 이대형이 때려냈다. 이대형은 삼삼과 경기 1회초 2번 타자로 나와 윤성환의 2루를 때려 중견수와 우익수, 2루수 사이에 떨어지는 바가지 안타를 쳐냈다. 시간은 14시04분으로 김민우의 홈런과 같았지만 당시 중계화면으로 확인해보면 결과 이대형의 안타가 약간 빨랐다.

첫 볼넷은 강봉규(삼성), 몸에 맞는 볼은 박석민(삼성), 삼진은 정수성(넥센), 병살타는 박재상(SK), 실책은 강봉규, 폭투는 호세 카베얀(한화)이 각각 기록했다.

두산 고영민과 이성열은 KIA와 경기 3회초 첫 백투백 홈런을 때려냈다. /연합뉴스

2010 프로야구 1호 기록

항목	선수	팀	이닝
안타	이대형	LG	1초
2루타	박정권	SK	1말
3루타	손시현	두산	3말
홈런	김민우	넥센	1초
득점	김민우	넥센	1초
타점	김민우	넥센	1초
도루	김민우	넥센	5초
병살타	박재상	SK	5말

광주교육감기 초등학교 내일 본랑야구장서 개막

제32회 광주광역시 교육감기 초등학교 야구대회가 30일 본랑리본랑야구장에서 개막한다. 전남 흥타령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예선을 겸하는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우승팀 수창초를 비롯해 7개 학교가 참가하며 내달 1일까지 3일간 열린다.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콜드게임은 4·5회 7점으로 하고 준결승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김여울기자 wool@